

신간 불교만화

엄마로 오신 관세음보살님

‘오세암 1·2권’

원작 정채봉 / 그림 유병운  
파랑새어린이 / 8천원



동화작가 故 정채봉 선생의 원작을 만화로 새롭게 구성한 <오세암>이 나왔다. 엄마를 찾기 위해 앞 못 보는 누나 감이와 길을 나선 길손이는 설정 스님이 겨울 한 철 암자에서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하기로 한다. 설정 스님이 마을로 내려가 길손이 혼자 암자에 남은 어느 밤, 한바탕 폭설로 스님은 암자로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 잠든 길손이는 자신을 품에 안고 토닥거리주는 손길을 느낀다.

영어·한자·퍼즐 선보여

‘불교만화이야기 5’

불교만화연구소 펴냄  
3천원



격월간 불교만화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제 5권>이 나왔다. 이번호부터는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어, 한자로 배우는 불교’와 불화 ‘팔상성도’를 이용한 ‘틀린 그림찾기’ 등의 코너를 신설했다. 한 페이지짜리 카툰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배종훈의 불교카툰’과 퍼즐 ‘도전해보세요’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 1월 열린 ‘제2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행사 소식과 수상작 두 편도 실려 있다.

부처님 생애 등 25편 실려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 지혜’

글·그림 / 강병호  
화남 / 8천원



‘소년한국일보’와 ‘열린지평’ 등에 작품을 연재중인 증경만화가 강병호 씨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만화로 배우는 부처님의 지혜>를 펴냈다. 첫 장을 펼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가 12장의 그림에 담겨 있다. 1부 ‘만화로 보는 불교설화’에는 ‘살핀 바사익왕’, ‘가슴 속에 든 불발’ 같은 불교 설화를 비롯해 ‘아들에게 절한 황회 정승’, ‘맹모삼천’과 같은 교훈적인 만화 등 총 25편이 있다. 2부 ‘이야기 사랑방’은 강자이 ‘발바리’가 해설자로 등장해 여러 설화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큰스님들의 일화 ‘가슴 뭉클’ 옛절의 숨겨진 멋 ‘흥미진진’



한국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감동적인 일화, 아홉분의 큰 스님과 나눈 대담, 서울과 수도권 구석구석에 보석처럼 감춰져 있는 유서깊은 사찰을 찾아가는 기행문이 하나둘씩 모여 세상에 나온 것이 동화작가 우봉규 씨의 <산문(山門)> 그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봉규 지음  
씨앗을 뿌리는 사람 / 8천5백원

이 책에는 경허, 정수, 진묵, 청담, 서용, 탄허, 성철, 금오, 동산, 고암 스님 등 선지식들의 일화가 옛날 이야기처럼 잔잔하게 소개돼 있다. 특히 일화가 길어야 두 세장을 넘지 않아 책장이 금방금방 넘어간다. 그렇다고 가십거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일화속에 녹아 있는 교훈적 가르침은 읽는 재미를 훌륭하게 해준다.

생일이 어디 있겠소?”라는 명법론은 절로 웃음짓게 만든다. 성철 스님의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에게 ‘내가 꼬마 선지식에게 활을 한방 먹은 거야’라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는 동심으로 돌아가 있는 수행자의 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 ‘산문, 그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33편의 일화가 실려 있다. 이미 인구에 회자되어 널리 알려진 신작과 같은 같은 이야기도 있고 우봉규씨가 발품을 팔아가며 발췌한 오솔길 이야기 등 읽을 거리가 가득하다.

1부가 문헌을 통해 얻은 선지식들의 일화를 읽기 쉽게 대화 형식으로 각색한 것이라면, 2부 ‘산문, 그 눈오는 길’은 우씨가 직접 선지식들을 만나 인터뷰 한 내용들이다. 혼자 있는 곳이 바로 수행하는 토굴이라는 마곡사 토굴암 일우 스님, 망상을 가지지 않으면 늙지 않는다는 속리산 범주사 천룡 스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해인사 원당암 해암 스님 등 10여 스님들의 감로법문이 실려 있다.

제 3부 ‘산문, 서울을 따라 간 산사들’ 편은 기행문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청계산 청계사, 강화도 정수사, 도봉산 망월사, 관악산 연주암, 삼각산 진관사 등 주말에 한번쯤 답사해 볼 만한 사찰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잔잔한 필체로 선보였다.

동화처럼 친숙한 느낌을 줘 독자로 하여금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강한 매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이 책에서는 사진을 한 장도 찾을 수 없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감옥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어디에 있는 자유로워라’

틱낫한 지음 / 류시화 옮김  
침아출판사 / 9천원



세마디 제목만 읽어도 마음속에 금방 자유와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다. 지은이 틱낫한 스님의 방한여파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탓이다. <어디에 있는 자유로워라>는 틱낫한 스님이 미국 메릴랜드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역설한 내용을 묶었다. 스님은 이 책에서 인간은 감옥 밖에 있어도 구속된 존재일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얼핏 들으면 비논리적인 말 같지만 스님은 “이 순간 평화를 느끼는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또는 무엇을 하든 깨어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당신으로부터 평화가 퍼져 나가고

美 재소자들에게 마음의 평화 역설

주변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재소자들에게 강조한다. 항상 스님이 강조하는 ‘늘 깨어 있으라’는 법문이 재소자들에게 예외는 아닌 듯 하다.

틱낫한 스님은 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시간적 공간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제시한다. 이 순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한다는 욕심 자체가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쏟아져 나온 스님의 책에 자칫 식상할 수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다가간다. 김주일 기자

부처님 일대기... 불교이해 기본서

‘붓다, 그리고 삶’

주명철 지음  
정우서적 / 4천원



21세기 우리들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처음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불교의 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책속에 면면히 녹아 흐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명철 교수는 부처님의 삶이 결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떠나 있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특히 주 교수가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면서 근본 기준으로

출생~열반까지 객관적 접근 노력

로 삼은 것은 고(苦)·집(集)·멸(滅)·도(道)의 사성제다. 그래서 이 사성제의 가르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견져내야 할 큰 숙제다. 부록으로 고타마 붓다의 탄생 연도에 대한 고찰도 실려 있어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데 일조한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뫼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가장 행복한 공부	청하 스님	시공사
4	감산자전	대성 스님	여시야문
5	묻지 않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6	철학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김 재 경	마당벌은집
7	물은 달을 알고있다	예모루 마쉬루	나무심는사람
8	절간이야기	오현 스님	고요아침
9	미소짓는 발걸음	틱 낫 한	열림원
10	능엄주해의	전수태	운주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시아문 전화: (02)737-0695

건강해지는 비결과 부작용 없고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 • 청국장 먹고 효과 봤어요 • 집에서 청국장 잘 만드는 법 • 내가 만든 청국장 잘 보관하는 법 • 청국장 생으로 맛있게 먹는 법 • 청국장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법 • '청국장 다이어트'로 17kg을 감량한 김한복 교수의 다이어트 체험기 • 김한복 교수의 날씬한 몸매 만들기 10계명

‘청국장 열풍’의 주인공 김한복 교수는?

-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 서울대 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분자생물학 박사 • 1997~1998년 미국 스탠퍼드 의대 미생물 및 면역학과 연구원 • 1992년부터 호서대에 재직하며 이듬해 청국장 연구 시작 • 2000년 1월 '청국장 먹기 운동' 홈페이지(http://chungkookjang.com) 개설 • 현재 호서대학교 생물정보학과 교수

★ 교보문고 건강 베스트 2위 YES24 건강 베스트 5위 알라딘 건강 베스트 6위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을 개발한 미생물학 박사 김한복 교수의

청국장 다이어트 & 건강법

김한복 지음 / 272쪽(올릴라) / 14,500원

- SBS TV '잘 먹고 잘 사는 법' 방영(2003. 3. 1.)
- MBC TV '생방송 화제집중' 방영(2003. 3. 1.)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설법

니가 누구?

경봉 큰스님 지음 / 명정 스님 주해 / 442쪽 / 12,000원

성철스님도 우러러보았던 20세기 한국 불교의 거목! -경봉 큰스님의 육성을 책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참된 주인공을 찾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보리라.  
그리 하다가 죽으면 또 어찌리!”

- 여기 실린 60편의 법문은 물과 불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알려주고 있다. -조선일보
- 깨달음에 앞서 '참된 나'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경봉 스님은 이해하기 쉬운 설법과 사경성 같은 60편의 법문으로 중생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라고 한다. 하루 한 시간은 일상 속의 '참 나'를 마주하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조언한다. -세계일보



★ 교보문고 불교분야 베스트 2위 국내 최대 불교전문 서시아문 베스트 3위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경봉 큰스님 60년 설법의 총화! 통도사에서만 270만 부가 나간 바로 그 책!